

YONHAP | 연합리페르
REPÈRE

- ➡ 목차
- ➡ 과월호
- ➡ 정기구독신청
- ➡ 사진구입



Feature

초보 여행자를 위한 미국 여행 공략법

■ 글/임동근 기자

미국 비자 면제가 가시화되면서 세계 최고의 관광 국가인 미국에 대한 여행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델러스-포트워스, 디즈니랜드 등 미국의 주요 관광청들도 본격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며 한국인을 유혹하고 있다. 미국은 거대한 영토만큼이나 둘러볼 곳이 많은 나라이다. 유럽과 달리 관광지 사이의 거리도 멀어져 있다. 미국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준비는 물론 충분한 기간과 여행 경비가 필요하다. 미국 여행에 나선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필수 정보와 최적의 공략법을 소개한다.

한국에서 미국까지는 항공편으로 각각 서부가 11시간, 동부가 14시간 정도 걸린다. 미국 본토는 북위 25°~49°에 걸쳐 있고, 태평양 연안에서 대서양 연안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볼 것 많고 할 것 다양한 거대한 땅을 제대로 여행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 직장인이 여행을 위해 몇 주~몇 개월의 시간을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미국 패키지 여행 상품도 대부분 7~9일 일정의 서부코스와 동부코스, 동서 횡단 일정도 2주 정도에 불과하다. 수박 겉 핥기가 될 수밖에 없다. 시간과 돈이 충분한 여행자가 아니라면 한 번에 다 보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핵심 지역을 깊이 있게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항공료가 비싸기 때문에 한 번 갈 때 최대한의 시간을 내서 여행하는 것이 좋다.



여행 시기는 계절을 고려해 비수기를 노려라!

방문하고 싶은 여행지를 결정했다면 시기를 선택해야 한다. 미국의 기후는 지역에 따라 열대사바나, 몬순, 서안해양성, 지중해성, 냉대습윤, 사막, 스텝, 고산 기후 등 다양한 모습을 나타낸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태평양 연안은 지중해성 기후로 여행을 하는데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사막지대나 오대호 지역, 뉴욕이나 보스턴 같은 대서양 연안은 겨울에 영하 10°C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많아 여행하기에 그다지 좋지 않다.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지역은 6~9월에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디즈니랜드와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자리 잡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모하비 사막 지역은 오히려 이 때가 가장 비수기이다. 로지 가격이 싸고 관광객이 없지만 50°C까지 치솟는 날씨는 여행에 이상적이지 않다.

여름철의 샌프란시스코와 북부 캘리포니아 연안, 봄철의 남부는 안개가 끼어 축축하기 때문에 따스한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해양 스포츠를 즐기지 않는다면 3~5월과 9~11월의 준준수기나 12~이듬해 2월의 겨울에 방문하는 것도 좋다.

한편 여행 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항공료와 숙박비가 비교적 싼 비수기를 노려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연말연시, 설과 추석 연휴, 샌드위치데이 등의 황금연휴 기간, 7~8월 휴가철, 미국의 추수 감사절 연휴(11월 말), 미국 학생들의 방학 기간인 3월 말~4월 초는 관광객이 폭증하는 기간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7월 4일 독립기념일 및 9월 첫째 주 월요일인 노동절과 가까운 주말과 일요일도 되도록 벗어나도록 한다.

뉴욕의 경우 관광청이 뉴욕 방문 비수기를 분석해 관광객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올해 3~4월은 비수기가 없으며, 5월 22~27일, 7월 3~6일, 8월 21일~9월 2일(노동절 이전), 11월 23~27일, 12월 21~25일 등이 비수기다. 일반적으로 가장 비수기가 오래 지속되는 때는 날씨가 혹독하게 추운 1~2월의 겨울철이다. 뉴욕의 호텔 가격은 이 시기에 가장 저렴하며, 숙소를 잡기도 편하다. 라스베이거스와 샌프란시스코는 대규모 컨벤션이 열리는 도시들로 컨벤션 기간에는 숙소를 잡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고,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므로 피하도록 한다. 이들 지역을 방문할 때는 여행 전에 미리 현지 컨벤션 일정을 확인하도록 한다.

패키지 상품, 여행사별로 꼼꼼히 비교하자!

패키지 상품은 항공편, 숙소, 일정 등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비교적 가격도 저렴해 초보자들이 이용하기에 좋다. 그러나 자기만의 여행을 즐길 수 없고 일정이 빡빡해 여유롭지 않다. 그러나 최대한의 자유 일정을 보장하는 상품들이 있으므로 잘 살펴보도록 한다. 현지 패키지 일정이 끝난 후 기간을 연장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상품도 이용해볼 만하다.

패키지 상품은 크게 미국 서부 또는 동부 상품으로 나뉜다. 일단 미국과 캐나다를 연계한 상품이 있으며, 샌프란시스코와 라스베이거스, 그랜드캐니언을 여행하는 미국 서부 8~9일, 미국 동부와 나이가아가라 폭포, 보스턴을 묶은 7~8일, 미국 동부와 서부 완전 일주 11~15일, 뉴욕 자유여행 6일 또는 7일, 미 동부 아이비리그 명문대 탐방 10일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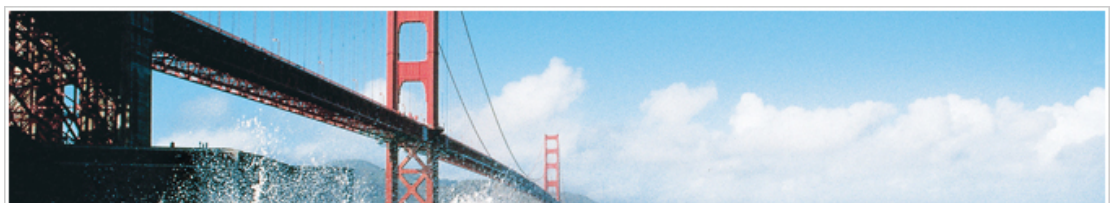
하나투어의 미국 동·서부 완전 일주 13일 상품을 보도록 하자. 항공편을 이용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총 여행 기간은 11일 정도가 되고, 이 기간에 12곳의 도시 및 관광지를 방문한다. 뉴욕은 전용 차량을 이용해 하루 종일 시내 관광을 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차창을 통해 시내를 구경한다. 중식 후 4시간 동안 차를 달려 라스베이거스로 가기 때문에 그곳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저녁 시간에 불과하다. 그랜드캐니언도 오후 시간에만 돌아볼 수 있다.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다’ 일정이다. 가격은 4월 기준으로 249만 원(가이드 및 기사 팁 불포함)이다. 웬만한 체력이 아니고는 참가하기 힘들 것 같다. 미 서부나 동부 단독 일정이 완전 일주보다는 조금 여유로운 편이지만 상황이 그렇게 많이 나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곳을 방문하고, 많은 것을 보고 싶어 한다면 패키지가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그야말로 미국을 한 번 방문해 봤다는 정도를 원하는 여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들이다.

여행사에서는 패키지여행의 단점을 보완하는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즉, 왕복항공권과 1일 이상의 투어가 포함된 상품으로 패키지의 편리함과 개별 여행의 자유로움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상품이다. 미국을 처음 여행하는 이들이 이용하면 좋을 상품이다.

예를 들어 ‘친지방문+LA 관광 3일’은 미국 로스앤젤레스까지 이동한 후 시내 관광을 즐기고, 호텔에서 하루를 숙박한 후 다음날부터 약 한 달 동안을 개별적으로 여행을 즐기는 일정이다. 여행이 끝난 후에는 로스앤젤레스 공항을 이용해 한국으로 돌아온다. 상품 가격은 119만 원으로 항공권 가격에 불과하다.

뉴욕의 경우, 도착 후 첫날 시내 관광만 책임지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돌아본 후 되돌아오는 6일 상품이 있으며, 7일 동안 뉴욕 패키지여행을 즐긴 후 최대 15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돌아볼 수 있는 상품, 출발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해 체류할 수 있는 상품 등이 있다.





개별 여행자를 위한 현지 상품

개별 여행자(FIT)나 비즈니스 여행객이 현지에서 합류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 삼호관광을 비롯해 조은관광, 드림투어, 동부관광 등 미국에 있는 한인여행사들과 롯데관광은 다양한 코스의 상품을 마련해두고 있다. 또 모두투어는 로스앤젤레스 시내 관광을 비롯해 유니버설 스튜디오, 디즈니랜드 및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샌디에이고 시월드, 뉴욕 ‘영화테마’, 워싱턴 미술관 & 박물관 탐방 등 주요 관광지지의 일일관광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항공권만 가지고 미국을 방문한 여행자가 주요 도시와 관광지를 쉽게 돌아볼 수 있는 상품들이다.

패키지상품을 이용하는 것과 항공권을 따로 마련해 현지여행사의 상품을 이용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저렴할까? 비슷한 일정에 현지에서 4박을 하는 하나투어의 미 서부 7일 상품과 롯데관광과 삼호관광의 4박 5일 상품을 비교해봤다.

여행사별 미 서부 상품 비교

4월 상품 기준

여행사	상품명	특전	상품가	추가요금	비고
하나투어	미 서부 7일	캘리포니아관광	159만 원/ 169만 원	팁 70달러	현지 합류 시 69만 원, 출발일 기준 15일 이내 귀국일 지정 가능
롯데관광	실속 미 서부 투어 5일	캘리포니아관광, 몬터레이 17마일 드라이브코스 관광	40만 원	팁 50달러	
삼호관광	미 서부 4박 5일	캘리포니아관광, 바스토우 씨줄러 스테이크	349달러 (약 33만3000원)	팁 50달러	

하나투어의 미 서부 7일 상품의 가격은 4월 기준으로 159만 원 또는 169만 원이고 이 상품을 현지에서

이용하면 69만 원이다. 한편 현지에서 합류하는 모두투어 5일 상품은 40만 원, 삼호관광은 349달러(한화 약 33만3000원)이다.

현재 3월 말에 출발해 45일간 여행할 수 있는 로스앤젤레스 왕복항공권의 최저 가격은 유류할증료 및 세금을 포함해 중국국제항공이 약 82만1200원, 일본항공이 약 85만6800원이다. 현지 상품을 이용하는 여행자의 항공권을 포함한 가격은 모두투어가 122만1200~125만6800원, 삼호관광이 115만4200~118만9800원이 된다. 저렴한 항공권을 찾아다니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30만~40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 현지 가이드, 운전사, 인솔자에 대한 팁도 하루 10달러를 따로 받고 있어 현지에서 합류하는 상품이 1인당 20달러 정도 저렴하다.

상품들은 로스앤젤레스와 그랜드캐니언, 라스베이거스, 샌프란시스코 등을 여행하는 일정으로 서로 비슷하나 하나투어와 롯데관광의 상품은 로스앤젤레스 시내 관광이 포함되어 있고, 삼호관광은 그 대신 요세미티국립공원을 둘러보는 일정이 있다.

색다른 체험! 트렉 아메리카 & 섀트렉

현지 여행상품으로 세계 각국에서 모인 젊은이들이 소그룹으로 여행하는 상품이 있다. 미국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캠핑을 하면서 다양한 문화와 생활양식을 배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트렉 아메리카는 15인승 전용 밴(Van)에 만 18~38세의 젊은 여행자 10~13명이 한 팀으로 여행한다. 한 팀에는 한국인 여행자가 4명까지 참가할 수 있으나 나머지 이용자가 동의할 경우, 최대 6명까지 함께할 수 있다. 전체 그룹 인원이 적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대도시에서는 3일간, 국립공원과 소도시에서는 2~3일을 체류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관광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기본적으로 캠핑을 하지만 인디언 호건을 비롯해 카우보이 캠프, 호텔, 모텔, 로

지, 통나무집 등 다양한 숙소를 이용한다.

식사는 일반적으로 아침 식사는 직접 해 먹고, 점심이나 저녁은 사 먹는다. 현지에서 신선한 음식 재료를 준비해 직접 요리를 해 먹는데 하루 식비는 9달러이다.

선트렉은 리더의 인솔로 기본 루트를 따라 여행이 진행되지만 참가자들의 합의 하에 일정과 루트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트렉 아메리카 주요 상품

상품명	여행 경로	가격(미국 달러)
웨스턴 원더 (Western Wonder) 7일	샌프란시스코-요세미티 국립공원-캘리포니아 중부-라스베이거스-그랜드캐니언-콜로라도강 -로스앤젤레스	863/928/984/1030
웨스턴2 (Westerner 2) 14일	로스앤젤레스-퍼시픽코스트-샌프란시스코 -요세미티 국립공원-시에라네바다-라스베이거스 -그랜드캐니언-레이크 하바수-샌디에이고-로스앤젤레스	1393/1497/1587/1662
프리덤 트레일 (Freedom Trail) 7일	워싱턴-버몬트-나이가라 폭포 -버크셔-보스턴-뉴욕	790/849/900/943
베스트 오브 더 이스트 (Best of the East) 14일	워싱턴-세네토어 국립공원-웨스트버지니아 -그레이트스모키마운틴 국립공원-내슈빌 -매머드 케이브 국립공원-시카고-오헤이오 -나이가라 폭포-핑거레이크-뉴욕	1313/1412/1414/1496/1567
서던 선 (Southern Sun) 21일	워싱턴-버지니아-테네시-앨라배마-뉴올리언스 -텍사스-샌안토니오-델리오-칼사베도 국립공원 -애리조나-뉴멕시코-몬테블라-그랜드캐니언 -시온 국립공원-라스베이거스-디즈니랜드-로스앤젤레스	2042/2164/2266

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최대 12명으로 구성된 한 팀이 스테레오 카세트와 에어컨, 각종 캠핑 장비와 조리 기구를 갖춘 15~18인승 밴으로 여행한다. 1주에 1인당 35달러의 식비를 모아 여행지에서 신선한 재료를 구입한 뒤, 아침과 저녁 식사를 직접 만들어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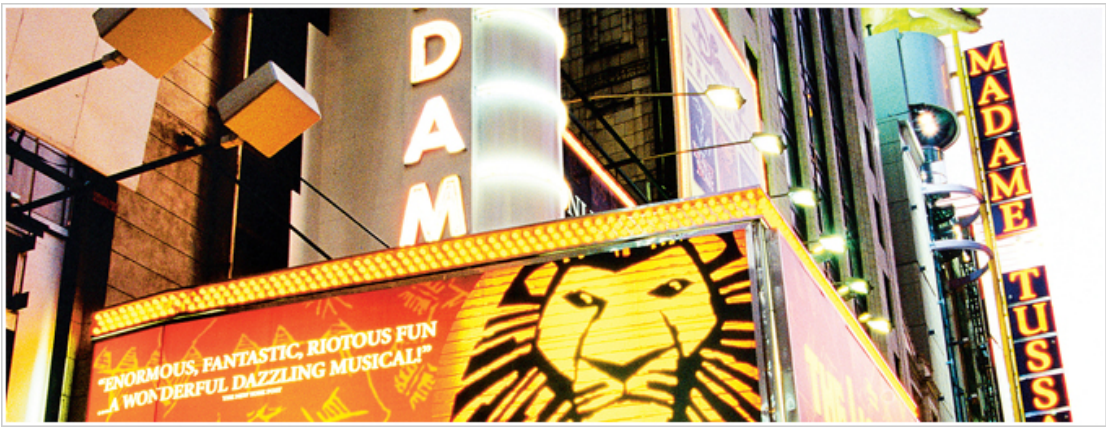
이들 상품은 세계 각국에서 예약을 하기 때문에 일찍 마감이 된다. 3월 초 현재 4월 말 출발 상품까지

마감됐으므로 이들 상품으로 여행하려는 이들은 2~3개월 정도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트렉 아메리카 상품의 가격은 여행 시기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웨스턴 원더(Western Wonder) 7일’ 상품의 올해 가격은 로스앤젤레스 출발 기준으로 현재~7월 7일·9월 22일~10월 20일 928달러, 7월 14일~8월 11일·9월 8일~9월 15일 984달러, 8월 18일~9월 1일 1030달러, 10월 27일 출발 863달러이다.

항공사별 항공권 가격을 비교하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항공, 델타항공, 싱가포르항공 등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라스베이거스, 뉴욕, 워싱턴, 시카고, 시애틀, 애틀랜타 등을 직항으로 연결하고 있다.



개별 여행을 준비하는 여행자라면 미국 여행에서 항공권이 경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항공사보다는 가격이 싼 할인항공권 전문 여행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한국 출발 기준으로 항공권 가격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비싸고, 외국 항공사가 싸다. 예를 들어 4월 1일 인천을 출발해 여행할 경우 항공사별 항공료를 비교해 봤다. 와이페이모어에 따르면 유류할증료 및 세금을 포함해 로스앤젤레스까지의 왕복항공권은 에어캐나다 79만6500원, 일본항공 86만5700원, 에바항공 87만6400원, 노스웨스트항공 103만6500원, 유나이티드항공 103만8000원 등이 낮은 가격대를 형성했고, 대한항공은 125만2300원이었다.

물론 와이페이모어가 판매하는 항공권은 모두 동일한 조건이 아니다. 대한항공을 제외한 다른 항공사는 모두 한 곳 이상을 경유해야 하며, 유효 기간도 적게는 1달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제각각이다. 여행 기간을 2개월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에어캐나다가 가장 저렴하지만 3개월 정도 잡고 있다면 노스웨스트항공이나 아메리칸항공을 선택해야 한다.

할인항공권 전문 여행사들 간에도 항공권 가격은 차이가 난다. 항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4월 1일 출발 항공권을 기준으로 와이페이모어에서는 밴쿠버를 경유하는 에어캐나다의 유효 기간 2개월의 항공권이 79만6500원으로 가장 싼지만 클럽리치투어와 투어익스프레스에서는 일본항공의 유효 기간 45일의 항공권이 85만680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또 탑항공은 에바항공의 유효기간 1개월 항공권이 69만7200원으로 최저가를 기록했다.

항공사별 인천-IA 왕복항공권 가격 비교(4월 1일 출발 기준)

출처:와이페이모어

항공사	경유지	출국편 소요시간	유효 기간	항공료(유료항종료 및 세금 포함)
에어캐나다	밴쿠버	13시간 12분	2개월	79만6500원
일본항공	도쿄	12시간 20분	45일	86만5700원
에바항공	타이베이	17시간 10분	1개월	87만6400원
노스웨스트항공	도쿄	11시간 55분	90일	103만6500원
유나이티드항공	샌프란시스코	11시간 50분	2개월	103만8000원
아메리칸항공	도쿄	12시간 10분	3개월	107만9300원
대한항공	도쿄	12시간	1개월	125만2300원

*항공료는 변경될 수 있음.

할인항공권 전문 여행사별 최저 항공권(4월 1일 출발 기준)

여행사	항공사	경유지	유효 기간	마일리지 적립	항공료(유료항종료 및 세금 포함)
탑항공	에바항공	타이베이	1개월	불가	69만7200원
와이페이모어	에어캐나다	밴쿠버	2개월	가능	79만6500원
클럽리치투어	일본항공	도쿄	45일	50%	85만6800원

그러나 자신의 여행 기간에 맞는 유효 기간을 가진 최저가의 항공권을 발견했다고 곧바로 구매할 일은 아니다. 값싼 항공권에는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마일리지 적립 여부는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이다.

인천-로스앤젤레스 왕복에 대한 적립 마일리지는 1만2000마일 정도이다. 국내선 보너스 왕복항공권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이다. 조사 대상 여행사 4곳 중 탑항공의 에바항공 항공권의 가격이 가장 싸지만 이 항공권은 유효 기간이 1개월로 가장 짧고, 마일리지도 적립되지 않는다. 김포-제주 왕복항공권으로 계산할 경우, 약 7만~9만 원 손해를 보는 셈이다. 반면 와이페이모어의 에어캐나다 항공권은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로 적립할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고, 일본항공의 경우 마일리지를 조금만 더 적립하면 일본 보너스 왕복항공권을 받을 수 있다.

미국 내에서의 이동 방법 대서양 연안에서 태평양 연안까지의 거리는 최대 4800km에 달한다. 비행기로 6시간, 버스로는 72시간, 기차로는 4일이 걸리는 거리이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미국 여행을 위해서는 여행 루트와 함께 이동 교통수단의 선택이 중요하다. 우선 비행기는 가격이 비싸다는 흠이 있지만 가장 안전하고 여행 기간이 짧은 여행자가 장거리를 이동하며 여행할 때 유용한 방법이다. 기차도 안전한 수단이지만 비행기나 버스에 비해 운행 횟수가 적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장거리 버스는 도로망이 잘 정비된 미국에서 가장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가격이 저렴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도심에 정류장이 있어 여행하기 편리하다.

국내선 항공권 미국 여행에는 다양한 항공운임제도가 있다. 외국인에게만 할인되는 항공권으로 에어패스(Air Pass), 미국 개별 방문 요금(YVUSA, Individual Visit U.S.A Fare) 등이 있다.

에어패스 미국 이외 국가에서 방문하는 여행자에게 발행하는 특별할인제도이다. 구간마다 쿠폰 1장을 사용하는데 거리 제한이 없어 장거리 이동과 여러 곳을 여행할 때 유용하다. 특정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을 소지한 고객이 동일한 항공사의 국내선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탑승 1회당 쿠폰 1장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으로 가려할 경우, 비행기가 중간에 디트로이트를 거친다면 쿠폰은 2장이 필요하게 된다.

에어 패스는 노스웨스트항공을 비롯해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항공, 콘티넨탈항공, US 에어웨이스 등이 발행하고 있다. 쿠폰은 3~10장의 세트로 구입할 수 있으며, 요금은 쿠폰 장수 및 항공사에 따라 달라진다. 성·비수기 요금차가 크므로 여름 휴가철 같은 성수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

노스웨스트항공의 아메리카 패스의 경우, 3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의 가격은 3쿠폰이 449달러, 10쿠폰은 1069달러이다. 유나이티드항공의 경우 3쿠폰을 기준으로 스타얼라이언스 국제선 티켓과 함께 발권하면 449달러, 이외 항공사 국제선 티켓과 함께 발권하면 539달러(성수기 659달러)에 이용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발권할 수 없으며, 미국인의 경우에는 현지의 외국인등록증이 있을 경우 구입해 이용할 수 있다.

미국 개별 방문 요금(YVUSA) 미국 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예약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평균 30%가 할인된다.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그만큼 가격이 비싸지므로 1~2개 도시나 단거리를 이동할 때 이용하기 좋다. 유효기간은 발매일로부터 1년이다.

디스커버리 패스 요금

기간	요금
7일	283
15일	415
30일	522
60일	645

단위 : 미국달러

디스커버리 패스 미국 최대의 버스회사인 그레이하운드 라인(Greyhound's Lines)과 제휴 회사 버스를 이용해 횡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패스이다. 그러나 동일한 2개 도시를 3회 이상 왕복할 수는 없다. 패스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을 시작해야 하며, 학생이나 경로우대 할인은 없다.

운행 노선 중 게이트웨이(Gateway) 도시의 그레이하운드 터미널에서 여권과 한국에서 구입한 바우처를 제시하면 버스 패스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약 없이 버스 출발 1시간 전에 터미널에 도착하면 되며, 출발

15~30분 이전에 탑승하면 된다.

디스커버리 패스는 그레이하운드 한국사무소(02-732-1464)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온라인(www.greyhound.co.kr)을 통해 예약한 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암트랙 패스별 요금

단위 : 미국달러

패스	성수기		비수기		지역
	15일	30일	15일	30일	
내셔널 레일 패스 (National Rail Pass)	499	599	389	469	미국 전역
서부 레일 패스 (West Rail Pass)	369	459	329	359	서부지역, 시카고, 뉴올리언즈, 그랜드캐니언, 사우스캐롤라이나, 밀워키, 휴스턴 등
동부 레일 패스 (East Rail Pass)	369	459	329	359	동부지역,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피츠버그, 헬퍼스, 애틀랜타, 시카고 등
북동부 레일 패스 (Northeast Rail Pass)	299	-	299	-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버펄로, 나이아가라 등

암트랙 패스 철도 여행자를 위한 여행권으로 철도가 연결된 미국의 400여 개 도시와 캐나다를 여행할 수 있다. 성수기와 비수기 요금으로 구분되며 올해 성수기는 5월 23일~9월 1일까지이다. 만 15세 미만 어린이는 50% 할인이 적용된다.

패스는 미국 전역을 커버하는 내셔널 레일 패스, 서부지역과 시카고, 그랜드캐니언, 밀워키, 휴스턴 등을 연결하는 서부 레일 패스, 동부지역과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애틀랜타, 시카고를 운행하는

동부 레일 패스, 뉴욕을 비롯한 보스턴, 필라델피아, 워싱턴, 나이아가라 등을 지나는 북동부 레일 패스로 나뉜다.

숙소는 위치·가격·안전을 고려해 선택하라!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숙소이다. 관광지나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안전한 지역에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 미국에는 가격이 싼 YMCA와 YWCA, 유스호스텔에서부터, 모텔, B&B, 호텔 등 취향과 여행 경비에 따라 고를 수 있는 다양한 숙박 시설들이 있다.

YMCA나 YWCA는 숙박요금이 1박에 30달러 정도로 비교적 싼 편이지만 시설이 좋지 않고, 유스호스텔은 15~20달러로 가장 싸고 비교적 시설도 깨끗한 편이지만 도시 중심가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으므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한 후 예약하는 것이 좋다.

호텔은 호텔패스, 호텔트리스, 옥토퍼스트래블, 돌핀스트래블, 트래블스타 등 국내의 호텔 예약 전문업체를 통하거나 미국의 호텔스닷컴(www.hotels.com), 프라이스라인(www.priceline.com), 익스페디아(www.expedia.com) 등의 대표적인 여행 사이트를 통해 예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호텔 예약 업체에 따라 똑같은 호텔도 가격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 위치한 3성급 호텔인 '밀포드 플라자(Milford Plaza)'의 4월 1일 1박 싱글 요금을 확인해 보면 호텔패스가 278달러(약 26만8000원), 옥토퍼스트래블 273달러(약 26만3000원), 돌핀스트래블 286달러(약 27만5000원), 호텔트리스 26만7900원, 트래블스타 27만3000원이다. 가격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최대 가격 차이는 1만2000원 정도이다.

해외 호텔 예약업체를 잘 이용하면 더 싼 가격에 같은 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산했을 경우, 호텔스닷컴은 약 16만9000원, 익스페디아는 179달러(약 17만3000원)에 객실 가격을

내놓고 있다. 물론 한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예약하는 데 국내 사이트보다 불편하다.

[▲ top](#)

